

공산성 한바퀴 둘러보기

문의 공산성 안내소 041-856-7700



금서루 → 쌍수정 → 왕궁지 → 진남루 → 영동루 → 광복루
→ 만하루와 연지 → 영은사 → 공북루 → 공산정 → 금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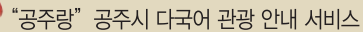
금서루 → 쌍수정 → 왕궁지 → 진남루 → 영동루 → 광복루
→ 만하루와 연지 → 영은사 → 공북루 → 공산정 → 금서루

금서루 → 쌍수정 → 왕궁지 → 영은사 → 공북루 → 금서루

금서루 → 쌍수정 → 왕궁지 → 영은사 → 공북루 → 금서루

금서루 → 공산정 → 공북루 → 만하루와 연지 → 영은사 → 금서루

금서루 → 공산정 → 공북루 → 만하루와 연지 → 영은사 → 금서루



스토어에서 “공주랑 푸시” 를 검색하세요



인조와 쌍수정 이야기



이웃 공산성 쌍수정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624년 인조임금이 왕위에 오른 직후 이괄이란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조는 왕이 된지 1년도 못 되어 도성을 떠나 공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공산성의 큰 나무 두 그루에 기대어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얼마 후 반란군을 완전히 토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놓은 인조는 그동안 버텨뚱이 되어주었던 나무에 정3품의 벼슬을 내리고 금대를 걸어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해요.

훗날, 이곳에 지은 정자가 바로 쌍수정이랍니다.



◆ 기 간 : 4월 ~ 11월(혹서기 6~8월 제외) 매주 토, 일요일,
백제문화제 기간

◆ 시 간 : 11시, 13시, 14시, 15시, 16시(1일 5회)

◆ 장 소 : 공산성 금서루 일원

◆ 내 용 : 수문병 근무교대식, 특별프로그램, 백제의상체험 등

고마열차

◆ 기 간 : 3월 ~ 11월(매주 토·일요일, 백제문화제 기간)

◆ 운행구간 : 공산성↔송산리고분군↔공주한옥마을↔국립공주박물관

◆ 출발장소(매표소) : 공산성(공주시 웅진로 280)

◆ 운행시간 : 10 ~ 17시

◆ 승차요금 : 3,000원(어른기준)

◆ 문의처 : 041-840-2264



추정왕궁지(推定王宮址)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웅진시대 초기의 왕궁터로 추정된다.
1985~1986년 총 2년에 걸친 발굴 조사
때 10칸, 20칸 등의 큰 건물터와 돌로
쌓은 둥근 연못터 및 목곽의 저장시설 등
각종 유적이 확인되었고, 백제의 연꽃
무늬 수막새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쌍수정(雙樹亭)

문화재자료 제49호

쌍수정은 조선시대 인조가 이괄(李适)의 난(亂)을 피하여 일시 파천(播遷)했을 때 5박6일간 머물렀던 곳이다. 쌍수(雙樹)에 기대어 왕도(王都)를 걱정하던 인조가 평정(平定)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쌍수에 통훈대부(通訓大夫)의 영(令)을 내리셨다는 유래가 있다.

쌍수정 사적비(雙樹亭 史蹟碑)

도지정유형문화재 제35호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물렀던
(인조 2년 2월 18일 ~ 23일) 5박6일간의
내용을 새긴 비문이다.
비문(碑文)은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신휼(申鉉)이 지은 것으로 글씨는 숙종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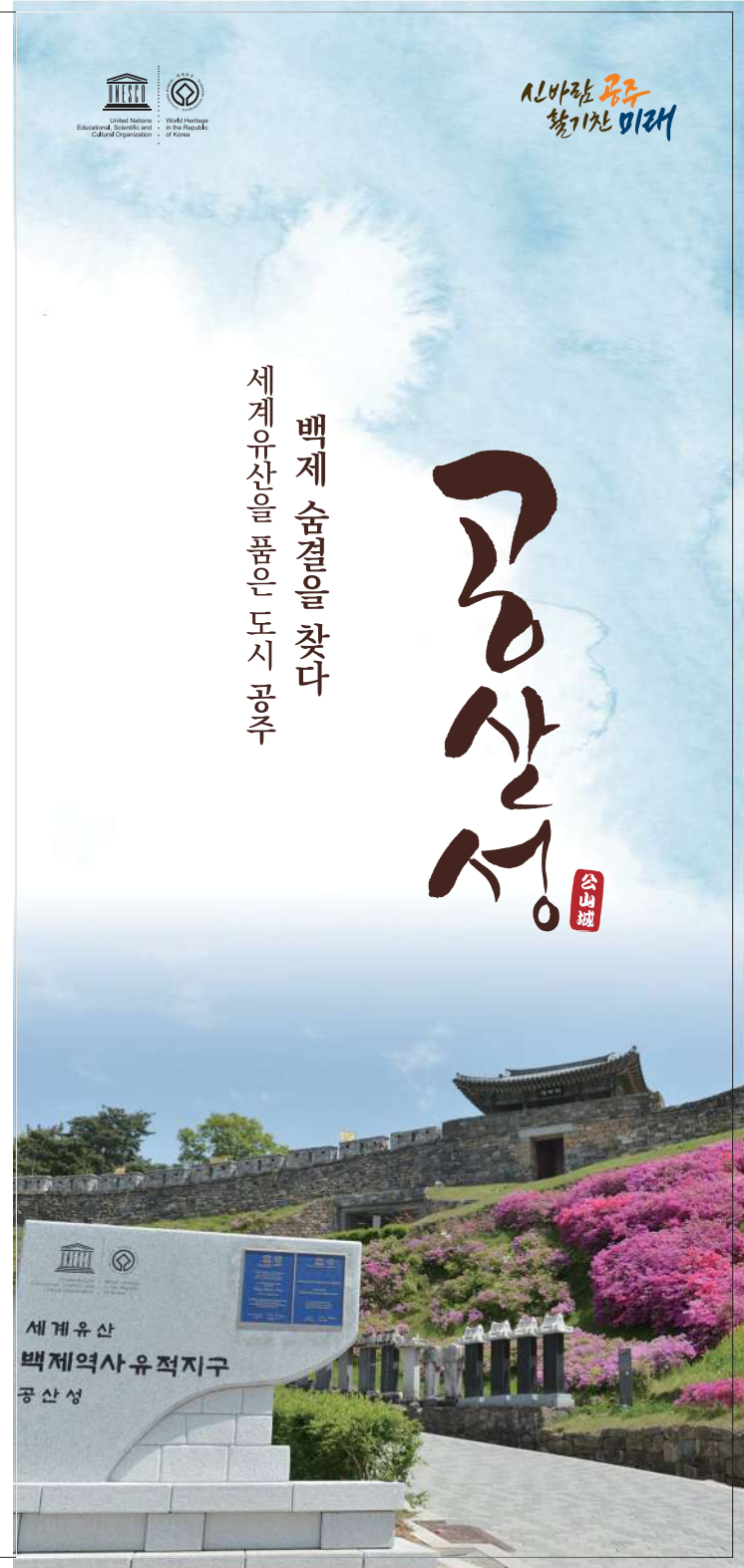
임류각(臨流閣)

임류각은 백제 동성왕(東城王) 22년(500) 왕궁의 동쪽에 건축한 건물로서 신하들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1980년에 산성에서 발굴조사된 추정임류각지(推定臨流閣址)의 구조를 근거로 1993년에 새로 복원한 것이다.



백제 숨결을 찾다

공산서



공산성 둘러보기

공산성은 웅진백제시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왕성으로 백제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이다.

비단결 금강이 감싸 흐르는 고풍스러운 성곽을 따라 걷다보면 1500년전 고대왕국 대백제의 찬란했던 향취가 가슴속 깊이 다가온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문주왕 원년(475)에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공산성은 문주왕을 비롯해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을 거쳐 성왕16년(538)에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64년 간 백제의 왕성이었다.

공산성은 백제 시대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조선시대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다. 이 성은 금강에 접한 해발 110m의 산에 능선과 계곡을 둘러싼 포곡형 산성으로 축조되었는데, 백제시대에는 토성이었다가 조선시대 인조, 선조 이후에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현재는 동쪽의 735m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석성이다.



성의 길이는 총 2,660m(토성 735m, 석성 1,925m)이고, 동서남북 네 곳에서 문 터가 확인되었는데,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아있었고, 1993년에 동문과 서문을 복원하여 각각 영동루와 금서루로 명명하였다.

공산성은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감영을 비롯해 중군영 등 중요한 시설이 있었다. 현재 성내에는 추정왕궁지를 비롯해 백제시대 임류각지, 연지와 통일신라시대의 건물터, 그리고 조선시대 유적인 쌍수정, 영은사, 쌍수정사적비, 만하루, 명국삼장비 등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특히 2011년 10월에는 백제의 옷칠가죽찰갑옷을 비롯해 마갑과 화살촉,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갑옷에 645년이라는 글씨가 남아있어, 갑옷의 제작 및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곽길을 따라 걷다보면 금강을 낀 공주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 트래킹을 하기에에도 최적의 장소이므로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GONGSANSSEONG

웅진백제시기를 대표하는 왕성으로 2015년 7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공산성내 역사유적



동 | 영동루(迎東樓)

영동루는 공산성(公山城)의 4개 성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으로 이미 무너져 없어진 것을 1980년에 발굴 조사하여 건물의 밑부분 구조를 확인하였다. 문터 옆 양쪽에서 원래의 문을 지탱하는 돌이 그대로 발견되었다. 「공산지(公山誌)」의 2층 3칸 건물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동문의 누각을 복원하였다.



서 | 금서루(錦西樓)

금서루는 4곳의 성문 중 서쪽에 설치한 문루였으나, 유지(遺址)만이 남아있었는데 이후 성내(城內)로 진입하는 차도로 이용되다가 1993년도에 복원되었다. 「공산지(公山誌)」에 의하면 문루의 규모는 동문과 같이 정면 3칸, 측면 1칸의 중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남 | 진남루(鎭南樓)

문화재자료 제48호

진남루는 공산성의 남문(南門)이며 토성(土城)이었던 공산성을 조선시대에 석성(石城)으로 다시 쌓으면서 건립한 건물로 조선시대에는 삼남(三南)의 관문(關門)이었다.



북 | 공북루(拱北樓)

도지정유형문화재 제37호

공북루는 공산성의 북문(北門)으로서 선조 36년(1603) 옛 망북루(望北樓)의 터에 신축한 것으로 조선시대 문루건축(門樓建築)의 좋은 예(例)이며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강 사이를 왕래하는 남북통로의 관문(關門)이었다.

명국삼장비(明國三將碑)

도지정문화재 제36호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왜적의 위협을 막고 선정(善政)을 베풀어 주민을 평안하게 하였던 명나라 장수 이공(李公), 임제(林濟), 남방위(藍芳威)에 대한 사은(思恩) 송덕비(頌德碑)이다.



광복루(光復樓)

문화재자료 제50호

광복루는 원래 공산성의 북문인 공북루(拱北樓) 옆에 있던 누각을 현 위치로 옮기고 8. 15 광복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광복루라 개칭한 것이다.



연지 및 만하루(蓮池 및 挽河樓)

연지-충남도기념물 제42호

연지는 공산성 안에 있는 연못 중 하나이다. 단(段)의 형태로 석축(石築)을 정연하게 쌓았으며 동서양측에 넓은 통로를 둔 것이 특징이고 깊이는 약 9m이다. 연못과 금강 사이에 만하루(挽河樓)라는 정자를 세웠다.



영은사(靈隱寺)

대웅전-도지정유형문화재 제51호

영은사는 세조 4년(1458)에 지은 사찰로 임진왜란 때에는 승병의 합숙소로 사용하였으며, 광해군 8년 (1616)에 승장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